



미국 ISM 제조업지수, 6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미국 공급관리협회(ISM)는 2011년 12월 제조업지수¹⁾가 전월대비 1.2%p 상승한 53.9%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, 이는 6개월래 최고치에 해당함.

- 신규주문지수도 전월대비 0.9%p 상승한 57.6%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, 고용지수도 전월대비 3.3%p 상승한 55.1%를 기록하는 등 2012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.
- 그러나 제조업 회복세가 2011년 종료되는 설비지출 세제혜택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.
- 한편, 상무부에 따르면 2011년 11월 건설지출이 전월대비 1.2% 증가하였으며, 민간건설지출도 1.0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■ 2012년 미국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경기침체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유럽이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신흥국과 디커플링할 가능성이 제기됨.

- Barclays 캐피탈의 이코노미스트 Dean Maki는 유럽의 경기침체가 2012년에도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미국경제를 침체에 빠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, 이는 최근 주택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내수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.
- BMO 캐피탈의 Sherry Cooper는 2012년에는 임대수입이 가능한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를 중심으로 주택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으며, 노무라 증권은 경기침체에 보류했던 자동차 구입 증가로 자동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.
- 모건 스탠리는 2012년 유럽의 경제성장률은 0.2%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인 2.2%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, JP모건과 UBS도 2012년 미국경제는 2011년보다 양호한 2.5%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함.

(Market Watch, 1/3 등)

1) ISM 제조업지수는 미국 내 약 300개 기업의 구매담당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응답자와 중립적인 응답자의 비율을 조합하여 산출함.